

## 美 2024.6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 1. 고용지표 내용

- 6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s)는 전월대비 20.6만명 증가 [Bloomberg 시장예상치 +19.0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3.6만명 증가[예상 +16.0만명]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7.0만명 증가
    - 세부 업종별로는 교육·의료(+8.2만명), 건설(+2.7만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문기업서비스(-1.7만명) 등은 감소
  - 직전 2개월 취업자수는 11.1만명 하향조정(24.5월 -5.4만명, 4월 -5.7만명)
- 경제활동참가율(62.5% → 62.6%)[예상 62.6%] 및 실업률(4.0% → 4.1%)[예상 4.0%]은 전월에 비해 상승
  -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7.7만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취업자수는 11.6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16.2만명 증가
  - U-6 실업률\*은 7.4%로 전월과 동일
    - \* 최근 4주간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
-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0.4% → 0.3%)[예상 0.3%] 및 전년동월대비(4.1% → 3.9%)[예상 3.9%] 모두 하락
  -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전월과 동일(34.3시간 → 34.3시간)[예상 34.3시간]

주요 부문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24.4월	5월	6월	'20.3월 이후 누적
비농업 전체	10.8	21.8	20.6	632.9
- 민간부문	10.8	19.3	13.6	583.2
(건설)	-0.5	1.6	2.7	63.0
(제조)	0.7	0.0	-0.8	17.0
(도·소매)	2.1	0.9	0.6	45.4
(운수·창고)	2.1	1.2	0.7	81.4
(전문·기업서비스)	-1.7	3.1	-1.7	151.3
(교육·의료)	9.8	8.1	8.2	335.4
(여가·음식숙박)	-0.9	2.2	0.7	1.4
- 정부부문	0.0	2.5	7.0	151.3

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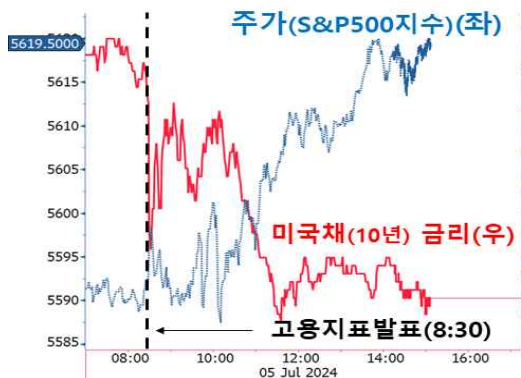


작성자 : 조광식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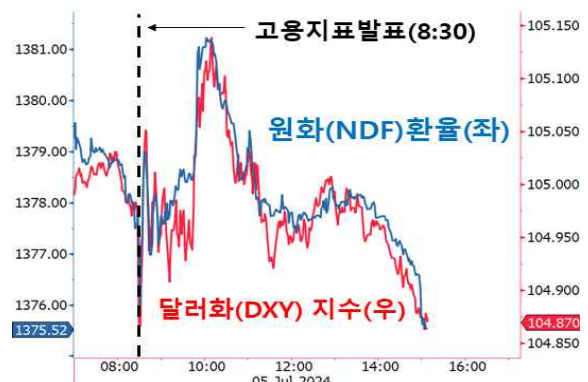
##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민간부문 증가세가 부진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11.1만명)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지속
    - \* '24.2월 26.1만명 → 3월 26.7만명 → 4월 21.8만명 → 5월 21.2만명 → 6월 17.7만명
  - 노동시장이 균형에 보다 다가가면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전월대비 하락
  -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은 건설 및 교육·의료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월 대비 축소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24.5월 19.3만명 → 6월 13.6만명)
  - 한편 가계조사에서 실업률(4.1%)은 3개월 연속 상승
-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6월 고용보고서가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연준의 조기(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 \* JPM, BoA는 금일 고용지표 발표 이후 9월 인하 가능성(기존 11월 및 12월 전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Fed Fund Futures에 반영된 9월 금리인하 확률은 전일 78.5%에서 83.0%로 상승
  - 한편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한 일부 연준인사의 발언\* 등도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주장을 뒷받침
    - \* 6월 FOMC 회의록에서 일부 연준위원은 최근 기업조사 취업자수가 실제 일자리 증가수보다 과다하게 집계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고용지표 발표(8:30am) 이후 시장이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 하향조정 및 실업률 상승 등에 더욱 주목하며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미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

미국채 금리(10y) 및 주가(S&P 500 지수)



미달러화(DXY) 및 원화(NDF)



자료 : Bloomberg

## ※ 시장참가자 평가

- **(JP Morgan)** 6월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실업률은 4.1%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금번 사이클 최고치를 기록. 금번 결과로 인해 연준은 하반기 중 금리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 당사는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하고 있으나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 **(BoA)** 6월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민간 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직전 2개월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분기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17.7만명)이 1분기(26.7만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증가세가 한단계 하락했음을 시사. 금번 보고서 결과는 연준의 조기(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것으로 평가되나, 당사는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및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년중 연준이 12월에 한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 **(MS)** 금번 고용보고서는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하향조정(-11.1만명)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평가됨.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17.7만명으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다만 가계조사 결과는 낮은 인구 추정치, 이민가정에 대한 자료 부족, 낮은 응답률 등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당사는 연준이 9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하여 금년중 3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 **(Nomura)** 6월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건설 및 교육·의료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음. 실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실업 기간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실업기간이 5주 이상인 답변자수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에 따라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업률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
- **(TD)** 6월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하락세는 더딘 모습을 보이거나 꾸준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임. 최근 경기, 인플레이션에 이어 고용시장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연준 금리인하 횟수에 대한 컨센서스는 당사의 전망과 같이 2회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UBS)** 6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최근 경제 성장 둔화가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임. 금년중 취업자수는 25만명 하향조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6월 취업자수 조정폭이 컸던 것을 감안할 때 다음달 고용지표 발표시 6월 취업자수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경기둔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둔화세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
- **(CACIB)** 6월 고용 보고서는 기업조사 취업자수 증가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말해줌. 특히 직전 2개월 취업자수의 큰 폭 하향조정, 실업률 상승에 주목하고 있음.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하는 임금상승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WSJ)** 6월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3.9%)도 21.6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연준은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 결과를 확인하고 노동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 안도감을 갖겠지만 여전히 견고한 일자리수 증가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에 대한 인내심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